

16세기 여성시인 송덕봉 작품집

정창권

1. 송덕봉의 생애와 문학세계

송덕봉(1521~1578)은 중종 16년 12월 20일 전라도 담양에서 태어났다. 홍주 송씨로 본이름은 알 수 없고, 자가 성중(成仲), 호가 덕봉(德峯)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송준은 사헌부 감찰·단성 현감 등을 지냈고, 어머니 함안 이씨는 사헌부 대사헌·전라 감사·예조 판서 등을 역임한 이인형의 따님이었다. 덕봉은 그들 사이의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녀는 16살에 24살의 미암과 혼인하여 유경렴과 일명 '은우어미'라는 1남 1녀를 두었다.

덕봉이 살았던 조선중기만 해도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혼례를 올리고 그대로 눌러 사는 장가와 처가살이 혹은 친정생활이 보편적인 혼인 풍속이었다. 한마디로 딸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시대였던 것이다. 덕봉도 역시 결혼 후 계속 담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집과 전답을 물려받아 조상의 제사를 모시며 살았다.

그렇다고 덕봉이 시부모를 전혀 모시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미암이 귀

양을 떠나자 그녀는 시어머니 최씨를 모셔다가 지성으로 봉양했는데, 이에 최씨가 그녀의 효성에 감동하여 미암의 귀양지인 함경도 종성까지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혼자서 예(禮)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도 하였다.

16세기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급자족적 가족사회였다. 그래서 의식주를 비롯한 가족의 경제적 측면을 담당한 안주인의 역할이 크고 중요했는데, 덕봉도 역시 가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에서부터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 집안에 필요한 살림을 장만하는 일, 가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 뿐만 아니라 수입·지출과 같은 경제적 책임을 떠맡는 일, 나아가 곤궁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는 구휼(救恤)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덕봉이 항상 그렇게 살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살림을 주관하면서 틈나는대로 부녀모임이나 바깥구경, 장기두기와 집안잔치 및 창작활동 같은 각종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하였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송덕봉의 문학세계에 대해 알아보자.

미암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글(謚狀)에 따르면, 덕봉은 천성이 명민하고 경서와 사서를 두루 섭렵해서 여성 선비(女士)로서의 품모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그녀는 여느 16세기 여성 예술가처럼 평생 동안 시와 문, 편지 등을 써서 『덕봉집(德峯集)』이란 시문집을 남겼다.

『덕봉집』은 그녀의 나이 51세인 1571년에 남편 미암이 처조카 송진(宋震)을 시켜 그 동안 덕봉이 지은 시 38수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었다. 미암은 이렇게 부인이 지은 시를 모아 시집을 내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먼 길을 다녀오면 항상 10리 밖까지 마중을 나가며, 또 그녀가 몸이 아플 때는 며칠 간 휴가를 내어 간호하는 등 매우 자상한 성품의 남편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아들 경림을 통해 그것을 전해 받고 무척 기뻐한다. 더욱이 자신의 시가 없어지지 않고 후세에 전해지게 되어 희비가 엇갈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그 시집은 전해지지 않고 남편 미암이 1567년 10월부터

1577년 5월까지 거의 매일같이 기록한 『미암일기(眉巖日記)』와 그 부록에 대표적인 편지 1통, 문 2편, 시 20여 수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들 작품은 『덕봉문집(德峯文集)』에도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기의 부록처럼 미암이 지은 시문과 함께 묶여 있다. 이를 토대로 그녀의 작품세계를 간략히 살펴보자.

덕봉은 미암에게 자주 편지를 써서 보냈다. 특히 그들 부부는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덕봉은 아래와 같이 편지를 통해 미암에게 집안 소식을 전하곤 하였다.

담양의 부인한테 편지가 왔는데 아무 탈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순창과 담양의 관아에서 쌀과 누룩을 주고, 흥덕에서도 소금 두 섬을 실어보냈다고 한다(『미암일기』 戊辰(1568년) 2월 24일조).

한번은 미암이 서울로 올라와 근 4개월째 홀로 벼슬하면서 일체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담양으로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러자 덕봉이 예순이 가까운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로운 일이지 결코 부인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책망하는 긴 답장을 써서 보낸다. 이 편지를 읽고난 미암은 “부인의 말과 뜻이 다 좋아 탄복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순순히 인정한다.

또 그녀는 이듬해인 1571년 7월에 <착석문 서>와 <착석문>이란 두 편의 문을 지어 미암한테 친정 부모의 묘소 앞에 비석을 세우는 일을 더 이상 늦추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래서 미암은 일꾼들을 보내서 근 한 달 만에 처부모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음식을 장만하여 제사를 지낸다.

이 편지와 문은 이응태 부인의 한글편지, 허난설헌의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과 함께 현재까지 남아 있는 16세기 여성산문의 유일한 작품이자, 이 시기 여성들의 의식세계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편 덕봉은 시 짓기를 즐겼을 뿐 아니라 그 재주도 좋았다. 심지어는 다 음과 같이 미암에게 시 짓는 방법을 일러줄 정도였다.

내가 선친의 경계(警戒)를 기술하여 시 한 구를 지었더니, 부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시를 짓는 법이 직설(直說)을 하여 문장을 짓듯이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산에 오르고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시작하여 끝에 가서는 벼슬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깜짝 놀라 그 말에 따라 다시 시를 지었다(『미암일기』 丙子(1576년) 11월 11일조).

덕봉의 시도 위의 편지나 문과 마찬가지로 생활 속의 문학이었다. 즉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감회를 있는 그대로 시로써 표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녀의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만큼 시가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 시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상어·구어체가 자주 쓰인다. 이것이 덕봉시의 특징이요, 나아가 동시대 여성문학의 특징이었다.

덕봉의 시세계를 거칠게 살펴보면 화답시와 생활시 및 자연시로 이루어져 있다.

화답시는 남편을 비롯한 아들, 사위, 시누이 등 가(친)족과 주고받은 시로 덕봉의 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평소 미암과 자주 시를 주고받았는데, 이들 시에서는 주로 미암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갖가지 생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하는 그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생활시는 말 그대로 생활에 얽힌 이야기를 시로써 표현한 것으로, 뒤의 작품집에 수록한 ‘마천령 위에서 읊다(摩天巔上吟)’, ‘취중에 읊다(醉裏吟)’, ‘을해년 제야에(乙亥除夜)’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자연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한 시로, 비록 작품 수는 서너편에 불과하지만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길 줄 아는 그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덕봉의 시는 집안 살림을 주관하면서 틈틈이 이루어진 생활 속의 문학이었다. 그래서 유난히 가족의 건강, 화합, 관직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그녀의 시 속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억압받고 희생하는 수동적인 여성상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온화하게 부탁하고 때로는 매섭게 질책을 가하면서 한 집안을 이끌고 나가는 당당한 안주인의 모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는 풍류스런 모습도 나타나 있다.

이 작품집은 『미암일기』 본문과 부록 속에 들어 있는 송덕봉의 작품을 따로 뽑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것이다. 필자는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품 유형별·창작 연대별로 수록했으며, 연대 미상은 맨 뒤에 따로 첨부하였다. 또 번역과 원문만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그 밑에 간단한 해제를 덧붙여 놓았다.

2. 편지

답문절공서(答文節公書)

앞드려 편지를 보니 값기 어려운 은혜를 베푼 양하였는데 감사하기가 그지없소. 단 군자가 행실을 닦고 마음을 다스림은 성현의 밝은 가르침인데 어찌 아녀자를 위해 힘쓴 일이겠소. 또 중심이 이미 정해지면 물욕이 가리우기 어려운 것이니 자연 잡념이 없을 것인데 어찌 규중의 아녀자가 보은하기를 바라시오. 3, 4개월 동안 독숙(獨宿)을 했다고 고결한 체하여 은혜를 베푼 기색이 있다면 결코 답답하거나 무심한 사람이 아니요. 안정하고 결백하여 밖으로 화채(華采)를 꾸고 안으로 사념(私念)이 없다면 어찌 꼭 편지를 보내 공을 자랑해야만 알 일이겠소. 곁에 지기의 벗이 있고 아래로 권속과 노복들이 있어 십목(十目)이 보는 바이니 자연 공론이 퍼질 것이어늘 꼭 힘들게 편지를 보낼 것까지 있겠소. 이로 본다면 당신은 아마도 겉으

로 인의를 베푸는 척하는 폐단과 남이 알아주기를 서두르는 병폐가 있는 듯하오.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의심스러움이 한량이 없소.

나도 또한 당신에게 잊지 못할 공이 있소. 가볍게 여기지 마시구려. 당신은 몇 달 동안 독숙을 하고서 붓끝의 글자마다 공을 자랑했지만, 나이가 60이 가까우니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이로운 것이지 결코 내게 갚기 어려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오. 하기사 당신은 귀한 관직에 있어서 도성의 만인이 우러러보는 처지이니 비록 수개월 동안의 독숙도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오.

나는 옛날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방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당신은 만리 밖에 있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슬퍼하기만 했소. 그래도 나는 지성으로 예에 따라 장례를 치루면서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했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묘를 쓰고 제사를 지냄이 비록 친자식이라도 이보다 더할 순 없다.”라고 하였소. 삼년상을 마치고 또 만리의 길을 나서서 멀리 험난한 길을 갔는데 이것을 누가 모르겠소. 내가 당신한테 한 이런 지성스런 일이 바로 잊기 어려운 일이오. 당신이 몇 달 동안 독숙한 공을 내가 한 몇 가지 일과 서로 비교하면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무겁겠소.

원컨대 당신은 영원히 잡념을 끊고 기운을 보양하여 수명을 늘이도록 하시오.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바라는 바이오. 나의 뜻을 이해하고 깊이 살피기를 엿드려 바라오. 송씨 아뢰.

伏見書中自矜難報之恩，仰謝無地，但聞君子脩行治心，此聖賢之明教，豈爲兒女子而勉強耶，若中心已定，物欲難蔽，則自然無查滓，何望其閨中兒女之報恩乎，三四月獨宿，謂之高潔有德色，則必不澹然無心之人也，恬靜潔白，外絕華采，內無私念，則何必通簡誇功，然後知之哉，傍有知己之友，下有眷屬奴僕之類，十目所視，公論自布，不必勉強而通書也，以此觀之，疑有外施仁義之弊，急於人知之病也，荊妻耿耿私察，疑慮無窮，妾於君，亦有不忘之功，毋忽焉，公則數月獨宿，每書筆端，字字誇功，但六十將近，若如是獨處，於君保氣，大有利也，非妾難報之恩也，雖然君居貴職，都城萬人頃仰之時，雖數月獨處，此亦人之所難也，荊妻昔於慈堂之喪，四無顧念之人，君在萬里，

號天慟悼而已，至禮誠葬，無愧於人，傍人或云，成墳祭禮，雖親子無以過，三年喪，又登萬里之路問關涉險，孰不知之，吾向君如是至誠之事，此之謂難忘之事也，公爲數月獨宿之功，如我數事相肩，則孰輕孰重，願公永絕雜念，保氣延年，此吾日夜願望者也，然意伏惟怒如察，宋氏。

▷ 1570년 6월 문절공(미암의 시호)에게 답한 편지. 이 해에 미암이 서울로 올라와 근 4개월째 홀로 자면서 일체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자, 송덕봉이 담양 본가에 있으면서 이 답장을 써서 보냈다(『미암일기』 부록과 庚午(1570년) 6월 12일조 참조).

3. 문

착석문 서(斷石文序)

미암이 함경도 종성에서 귀양살이를 한 지 19년만인 1565년 겨울에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1566년 봄에 충청도 은진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되어 내가 직접 가서 모시고 돌아와 함께 살았다. 그 같은 구사일생의 나머지에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선산의 곁에 비석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돌의 품질이 좋기로는 그 고을의 것보다 좋은 것이 없었다. 나는 즉시 석공을 불러 값을 주고 사서 배에 실어 보내 해남의 바다 위에 놔두었다. 1567년 겨울에 미암이 홍문관 교리로 성묘를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비로소 담양까지 끌어들여 놓았으나 다만 인력이 모자라서 깎아 세우지를 못하였다. 1571년 봄에 미암이 마침 이 도의 감사가 되어 혹 숙원을 이룰 수 있을까 마음이 부풀어 있었으나 감사란 폐단을 없애는 직책이니 사적인 일은 돌아볼 수가 없으므로 나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반드시 사비를 들여 이루도록 해야 하오.”라고 하였다. 나는 가히 졸렬함을 잊고 이 글을 썼다. 미암이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한편 후손들에게 끼쳐주기 위해서였다.

眉岩，謫居鐘山，十月九年，嘉靖乙丑(明宗二十年)季冬，蒙相恩，丙寅春，量移于恩津，余亦陪還同寓，十生九死之餘，唯所望者，立碣石於先塋之側，

而石之品好者，莫過於此縣之所產，即招石工，給價以質，載船以送，置海南之海上，隆慶元年(明宗二十二年)丁卯冬，眉岩，以弘文校理，掃墳還鄉，始曳運于秋城，而人力單弱，未得斷立，辛未春(宣祖四年二月)，適除口此道監司，庶幾得副宿願，中心慍慍，監司，長於除弊，不顧私事，而簡余曰，必須私備而後成，余忘其拙，而作此文，冀家翁感悟而扶助，又以貽夫後雲仍也。

착석문(斷石文)

천지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은 성현이 교화를 밝히고 사람들이 삼강오륜의 도를 행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예로부터 능히 그것을 용감하게 행한 자는 극히 적었소. 때문에 진실로 뒤늦게나마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힘이 부족해서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인자와 군자가 모두 유념해서 구해주고자 하였소. 내가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그 강령을 모르겠소. 그래서 아버지께 효도하려는 마음을 옛 사람을 좇아 따르고자 하는 것이요.

당신은 이제 2품의 벼슬을 얻어 삼대를 추증케 하고 나도 또한 예법에 따라 정부인이 되었으니 선영(先靈)과 구족(九族)이 모두 기쁨을 얻었소. 이는 반드시 선대에 선을 쌓고 덕을 베푼 보답일 것이요.

그러나 내가 홀로 잠 못 이루고 가슴을 치며 속이 상한 것은 옛날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자식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뒤에 모름지기 성심을 다해서 내 묘의 곁에 비석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요.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으니 매양 이것을 생각하면 슬픈 눈물이 눈에 가득하오.

이는 족히 인자와 군자가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일이요. 당신은 인자와 군자의 마음을 갖고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편지하기를 ‘동북끼리 사비로 하면 내가 그 밖의 일을 도와주겠요.’라고 하니, 이 무슨 마음이요? 당신의 맑은 덕행에 누가 될까 봐서 그런 것이요? 처부모에게 차등을 두어서 그런 것이요? 아니면 우연히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이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이 장가오던 날 ‘금슬백년(琴瑟百年)’의 시구를 보시고 어진 사위를 얻었다고 몹시 좋아하셨는데 당신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것이오. 하물며 당신은 나의 지우(知友)로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비하며 백 년을 함께 늙자고 했으면서 불과 40, 50말의 쌀이면 될 일을 이렇게 귀찮게 여기니 통분해서 그만 죽고 싶소. 경전에 하였기를 ‘허물을 보고 어짐을 알 수 있다.’ 고 하였지만 남들이 들어도 이 정도를 가지고 허물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은 옛 선비들의 밝은 가르침에 따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게 하여 중도에 맞기를 바라면서 이제 어찌 꼭 막히고 통하지 아니하여 어릉중자(於陵仲子)처럼 행동하려 하시오? 옛날 범중엄(范仲淹)은 맥주(麥舟)로 친구의 어려움을 구해줬으니 대인의 처사가 과연 어떠하오?

동북끼리 사비를 들여 하라는 말은 크게 불가하오. 혹은 과부로 근근히 지내고 있는 자도 있고 혹은 궁하여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자도 있으니 비단 거두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필코 원한만 사게 될 것이오. 『예기(禮記)』에 하였기를 ‘집의 있고 없음에 맞추어서 하라.’ 고 하였으니 어떻게 그들을 나무랄 수가 있겠소. 만약 사삿집에서 변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의 성의로 진작 해버렸을 것이오. 어찌 꼭 당신한테 구차하게 부탁했겠소?

또 당신이 종성의 만 리 밖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오직 소식(素食)만 했을 뿐이오 삼 년 안에 단 한 번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니 전일 장가왔을 때 그토록 간곡하게 대접해주던 뜻에 보답했다고 할 수가 있겠소? 이제 만약 귀찮은 것을 참고 비식을 세우는 일에 억지로라도 도와준다면 지하에 계신 분이 감동하여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것이오.

나도 또한 당신에게 박하게 베풀고 후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에 따라 장례를 지냈고 제사도 예에 따라 지냈으니 남의 며느리된 사람으로서 도리에 부끄러운 것이 없소. 당신은 어찌 이런 뜻을 생각하지 않소?

당신이 만약 나로 하여금 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비록 죽더라도 반드시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이요. 이 모두 지성에서 느껴 나온 말이니 글자마다 자세히 살피기 바라오.

天地萬物之類，惟人最貴者，立聖賢明教化，行三綱五倫之道也，然自千千萬萬古而來，能勇而行之者蓋寡，是故人苟有追孝父母至誠之心，而力足以遂願者，則仁人君者，莫不惕然留念而欲救之，妾雖不敏，豈不知綱領乎，孝親之心，追古人而從之，君今守二品之職，追贈三代，余亦從古禮而得參，先靈九族，咸得其歡，此必先世積善陰功之報也，然吾獨耿耿不寐，拊心傷懷者，昔我先君，常語子等曰，吾百歲之後，須盡誠立石於墓側之言，洋洋在耳，迨未得副之心，操救窘拯溺之力，而簡余曰，私備於同腹，而吾當以佐其外云，此獨何心，得非惡累清德而然耶，等差妻父母而然耶，偶然不察而然耶，且家君，自君東來之三日，見琴瑟百年之句，自以爲得賢壻，而失喜欲狂，君必記憶，況君我之知音，自此蛭蝨而偕老，不過費四五斛之米，工可口功，而厭煩至此，痛憤欲死，經曰，觀過知仁，聞者必不以此爲過也，公遵前修之明教，雖至微之事，盡善盡美，求合於中道，今何固滯不通，如於陵仲子耶，昔范文正公，以麥舟，教友人之窘，大人之處事何如耶，私備同腹之意，有大不可者焉，或有寡婦僅能支保者，或有窮不能自存者，非但不能收備，必起怨悶之心，體云，稱家之有無，何足誅哉，若私家可辨之力，則以余之誠心，業已爲之久矣，豈必苟請於君耶，且君在鍾山萬里之外，聞吾親之歿，惟食素而已，三年之內，一未祭奠，可謂報前日款接東床之意耶，今若掃厭煩，而勉救斷石之役，則九泉地下，先人哀感欲結草而爲報矣，我亦非薄施而厚望於君也，姑氏之喪，盡心竭力，葬以禮祭以禮，余無愧於爲人婦之道，君其肯不念此意耶，君若使我，不遂此平生之願，則我雖死矣，必不瞑目於地下也，此皆至誠感發，字字詳察，幸甚幸甚。

▷ 1571년 7월 미암에게 보낸 서와 문. 착석(斲石)은 선산에 비석을 깎아 세움을 말한다(『미암일기』 부록과 辛未(1571년) 7월 5일조 참조).

4. 한시

1) 우연히 읊다(偶吟)

한 쌍의 선학이 맑은 밤하늘에서 우니
 월궁의 선녀가 옥통소를 부는 듯 하도다.
 만리의 뜬구름 돌아간 곳에
 뜰에 가득한 가을 달빛이 하얀 털로 쓸어놓은 듯하다.

一雙仙鶴唳清霄

疑是姮娥弄玉簫.

萬里浮雲歸思地

滿庭秋月刷鸚尾(毛).

▷ 1545년 미암이 무장 현감으로 있을 때 송덕봉이 지은 시(『미암일기』 부록 참조).

2) 마천령 위에서 읊다(摩天嶺上吟)

가고 또 가서 드디어 마천령에 이르니
 동해는 끝이 없어 거울처럼 평평하다.
 만리 길을 부인이 무슨 일로 왔는고
 삼종의 의는 무겁고 한 몸은 가벼운 것.

行行遂至摩天嶺

東海無涯鏡面平

萬里婦人何事到

三從義重一身輕

▷ 1566년 송덕봉이 미암을 충청도 은진으로 이배시키기 위해 그의 오랜 귀양지인 함경도 종성으로 가면서 지은 시(『미암일기』 부록 참조).

3) 무제(無題)

가을 서리에 향기로운 국화가 십분 노랗고
봄비에 배꽃이 수없이 빛난다.

秋霜香菊十分黃
春雨梨花不數光

▷ 1568년 꿈에서 지은 시. 『미암일기』 辛未(1571년) 10월 15일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덕봉이 거년에 꿈 속에서 시를 짓기를(夫人去歲夢見詩二句云), 가을 서리에 향기로운 국화가 십분 노랗고(秋霜香菊十分黃) 봄비에 배꽃이 수없이 빛난다(春雨梨花不數光), 하였는데 이 때에 와서 비로소 맞았다(至是始驗)'.

4) 무제(無題)

국화잎에 비록 눈발이 날리지만
은대(승문원)에는 따뜻한 방이 있으리.
차가운 방에서 따뜻한 술을 받으니
속을 채울 수 있어 매우 고맙소.

菊葉雖飛雪
銀臺有煖房.
寒堂溫酒受
多謝感充腸.

▷ 1569년 9월 미암에게 보낸 화답시. 이 해 9월 1일 미암이 승문원에서 숙직하며 임금이 하사한 술상과 함께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보낸다.

눈이 내리니 바람이 더욱 차가워
그대가 추운 방에 앉았을 것을 생각하노라.
이 술이 비록 하품이지만
차가운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으리.

雪下風增冷
 思君坐冷房。
 此醪雖品下
 亦足煖寒腸。

그러자 덕봉이 위와 같은 화답시를 지어 보냈던 것이다(『미암일기』
 己巳(1569년) 9월 1일조 참조).

5) 4월 8일 윤관중, 유광룡과 더불어 술을 조금 들며(四月八日與尹燦光龍小酌)

삼동은 마땅히 춥고 얼어야 하겠지만
 봄날인데도 또 어찌 차가운고.
 지금 같이 좋은 철에 모이니
 和氣가 청산에 가득하다.

三冬宜凍冽
 春日又何寒
 如今佳節會
 和氣滿青山

지난 겨울에 홍역이 집에 들어오고, 仲春(음력 2월)에는 노비가 또 열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 송덕봉이 사위 윤관중·손주 조카 유광룡과 더불어 술자리를 갖고
 지은 시(『미암일기』 부록 참조). 창작 연대 미상의 작품이나 『미암
 일기』 庚午(1570년) 8월 15일조에 '담양에 홍역이 한창이고 부용
 의 자식 가미가 죽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1570년 4월
 8일의 작품인 듯하다.

6) 무제(無題)

스스로 원결마냥 물욕이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오경(오전 3~5시)까지 잠 못 이루시오.

옥당(홍문관)의 금마가 비록 즐겁다지만,

추풍에 마음대로 돌아오는 것만 하겠소.

自比元公無物慾

如何耿耿五更關.

玉堂金馬雖云樂

不若秋風任意還.

▷ 1570년 4월 미암이 보낸 시에 송덕봉이 화답한 시. 미암이 홍문관에 부제학에 제수되어 서울로 올라와 근 4개월째 홀로 관직생활을 하던 중 하루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라는 시를 지어 보낸다. 그러자 송덕봉이 이러한 화답시를 지어보냈다(『미암일기』 庚午(1570년) 4월 26일조 참조).

7) 단오에 오자와 새집에서 만나다(端午與吳姊會新舍)

하느님이 삼산의 수를 보내주시고

땅의 신령도 백세의 영화를 더해주리라.

창고가 가득함이 나의 소원 아니요

원앙처럼 화락하게 평생을 지냈으면…….

大公爲送三山壽

地祇爭輸百世榮.

滿廩盈倉非我願

鴛鴦和樂乃丹誠.

▷ 1571년 5월 5일 단오날 시누이 오매와 함께 새집에서 노닐며 지은 시로, 다음과 같은 오매의 시에 화답한 것이다(『미암일기』 부록과 辛未(1571년) 5월 11일 및 13일조 참조).

땅이 비었으니 청산이 멀고

처마가 높으니 여름날이 시원하다.

남쪽 사랑채에 까치가 집을 지으니

아마도 자손이 창성할 것을 알림이로다.

地曠青山遠

簷高夏日涼.

南廊成鵲室

應報子孫昌.

8) 미암의 시를 차운하다(次眉岩韻)

화락함이 세상에 짝이 없다 자랑마오

나를 생각해 착석문을 읽어보시구려.

군자는 광대하여 막힘이 없어야하나니

범공의 맥주일을 천 년 뒤에 생각해보오.

莫誇和樂世無倫

念我須看斲石文

君子蕩然無執滯

范君千載麥舟云

▷ 1571년 7월경 앞의 <착석문>과 함께 지어 보낸 시인 듯하다(『미암 일기』 부록 참조).

9) 무제(無題)

월녀(미녀)가 한번 웃으면 3년을 머무른다는데

당신은 사직하고 돌아오기가 어찌 쉽겠소.

越女一笑三年留

君之辭歸豈易乎

▷ 1571년 9월 미암에게 보낸 시(『미암일기』 辛未(1571년) 9월 19일 조 참조).

10) 미암이 가선대부로 올랐을 때에 짓다(眉岩升嘉善作)

황금띠를 들렀으니 선비로서는 극진한 영화

돌아와 초당에 누워 건강을 돌봄이 어떠하오?
벼슬은 사양할 수 있다고 일찍이 약속했으니
뜨락에서 달을 보며 돌아오길 기다리오.

黃金橫帶布衣極
退臥茅齋養氣何.
爵祿可辭曾有約
遊庭見月待還家.

▷ 1571년 10월 미암에게 보낸 시(『미암일기』 부록 참조). 이즈음 미암이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되어 즉시 서울로 올라가고자 집에 편지를 보낸다. 그러자 송덕봉이 이러한 시를 지어 이미 극진한 영화를 누렸으니 물러나서 건강을 돌보라고 권유한다.

11) 무제(無題)

눈 속에 백주도 얻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노란 술이 전상에서 봉해져옴이라.
스스로 한잔 들고 홍색이 얼굴에 가득하여
당신과 함께 태평이 돌아옴을 축하하도다.

雪中白酒猶難得
何況黃封殿上來
自酌一盃紅滿面
與君相賀太平廻

▷ 1572년 11월 궁궐에서 퇴선(退膳)을 보내오자 송덕봉이 축하의 뜻으로 미암에게 지어 준 시(『미암일기』 壬申(1572년) 11월 11일 조 참조).

12) 아들의 시에 차운하다(次男韻)

양이 석벽에 오름을 말하지 말라.
뜻이 있어 시리고 차가움을 견딘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올지니
봄바람을 버들과 함께 즐기리라.

莫言羊石壁

有志忍酸寒.

苦盡甘須到

春風與柳歡.

▷ 1574년 1월 아들 유경렴과 주고받은 시. 영릉에서 참봉을 지내던 유경렴이 모처럼 근친을 와서 붉은 저고리와 함께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바친다.

경렴이 회룡삼아 붉은 저고리를 바치다(景濂戲贈羅袖)

외로운 양이 석벽을 오르다가
눈을 핥으며 차가움을 견디네.
빠가 드러나고 털도 비록 빠졌지만
봄이 오면 뜻이 절로 즐거우리.

孤羊攀石壁

舐雪耐嚴寒.

骨露毛雖落

春來意自歡.

그러자 송덕봉이 위와 같이 화답했던 것이다(『미암일기』 부록 및 甲戌(1574년) 1월 12일조 참조).

13) 취한 중에 우연히 읊다(醉中偶吟)

평생에 세 번 낙양성(서울)에 이르니
남북의 좋은 산이 옛 모습대로 푸르다.
23년 동안 하늘가에서 피눈물 흘리더니

어찌 오늘날 금의영화 알았으리오.

平生三到洛陽城

南北佳山舊樣青

甘載天涯曾泣血

那知今日歸衣榮

▷ 1574년 3월 미암과 함께 서울생활을 하면서 비오는 날 취중에 지은 시. 이에 미암이 아래와 같이 차운(次韻)을 한다(『미암일기』 부록 및 甲戌(1574년) 3월 19일조 참조).

차운(次韻)

그대가 술에 취해 시성(詩城)을 지으니

구름 밖 푸른 모습을 놀라며 본다.

서울의 풍경이 비록 좋다하지만

돌아가 앞 처마에서 밥 먹는 이만 못하다.

喜君醉裏辦詩城

崔峯驚看雲外青

京洛風光雖最好

不如歸舍饌前榮

-귀사(歸舍)를 귀거(歸去)로 고쳤으니 부인의 말을 따른 것이다.

14) 중구(9월 9일)에 술을 조금 들면서(重九小酌)

옛날 남북으로 헤어져 있을 때

어찌 이 때가 있을 줄 알았으리요.

맑은 가을 좋은 명절에 모이니

천 리에서 서로 기약이라도 한 듯하여라.

昔日分南北

那知有此時.

清秋佳節會

千里若相期.

▷1574년 9월 9일 중양절 집안찬치를 베풀면서 지은 시. 이때 사위 윤관중, 아들 유경렴, 남편 미암도 차례대로 시를 읊었는데, 먼저 윤관중이 이러한 시를 짓는다.

경사스럽게 고당의 위에서 모시니
추풍에 해가 비치는 때로다.
거문고 노래에 흥취가 일어나니
이 모임을 백년이나 기억하세.

慶侍高堂上
秋風日照時.
絃歌情興發
斯會百年期.

그러자 유경렴이 이렇게 차운한다.

백발의 부모님이 당상에 함께 계시니
색동옷을 입고 이때에 춤을 춘다.
우리집의 무한한 즐거움은
이밖에 다시 무엇을 바라리요.

鶴髮俱堂上
班衣舞此時.
吾家無限樂
此外更何期.

다음으로 미암이 차운하기를,

대궐에서 은총을 받던 날

국화를 술잔에 띄우는 때,
한 집에 친한 이 5~6인이
함께 태평의 때를 즐긴다.

紫極承恩日
黃花泛酒時.
一堂親五六
同樂太平期.

한다. 이에 송덕봉이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차운했던 것이다(『미암
일기』 부록 및 甲戌(1574년) 9월 9일조 참조).

15) 중양일(9월 9일) 집안잔치 때에(重陽日族會)

금일 중양의 모임에
국화가 안 피어 참으로 서운하다.
내 자식이 비록 말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白衣로 온 것보다는 낫다.

今日重陽會
眞嫌菊未開
吾兒雖未職
猶勝白衣來

▷ 창작 연대 미상의 작품이다. 아들 유경림이 영릉참봉에 제수된
1570년 11월 이후에 지은 시이거나, 혹은 바로 위에서처럼 1574
년 9월 9일 중양절 집안잔치 때에 지은 것일 수도 있다(『미암일
기』 부록 참조).

16) 취중에 읊다(醉裏吟)

천지가 비록 넓다지만
안방에서는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다.

오늘 아침엔 반이나 취하고 보니
사해가 넓어서 끝이 안 보인다.

天地雖云廣

幽閨未見眞

今朝因半醉

四海闊無津

▷ 창작 연대 미상이다. 바로 위 15)번의 시를 지은 해 여름에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미암일기』 부록 참조).

17) 희룡삼아 미암의 시에 화답하다(戲和眉巖韻)

당신의 시 자랑하여 겸양이 없는데
맑기가 어떻게 소상강의 가을 같으랴.
소년의 운우 꿈(색욕)을 없애버리고
사물에 무심하면 과연 짝이 없으리.

君詩夸詭無謙讓

淸淨那同湘水秋

除却少年雲雨夢

無心事物果無儔

▷ 1575년 11월 18일 미암과 주고받은 시. 이날 미암이 다음과 같은 시를 주어 덕봉에게 준다.

부인에게 주다(贈夫人)

높기는 盧嶽 3천 길과 같고

맑기는 소상강 8·9월 가을 같으며

다시 陽春의 生物하는 뜻이 있어야

바야흐로 군자의 剛柔의 덕을 이루리라.

高如盧嶽三千仞

淸似瀟湘八九秋

更有陽春生物意
方成君子德剛柔

그러자 덕봉이 위와 같은 시를 지어 미암에게 주었던 것이다(『미암 일기』 부록 및 乙亥(1575년) 11월 18일조 참조. 하지만 이 작품의 창작 연대는 앞으로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18, 19) 동당을 읊어 미암에게 주다(詠東堂贈眉巖)

삼십 년 전의 집에
이제야 나란히 말고삐를 잡고 돌아왔네.
동당이 새로 시원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은 벼슬을 버리고 한가롭게 지내시구려.
三十年前舍
如今並轡還.
東堂新@落
君可舍簪閑.

차운(次韻) -미암 作-

사십 년 전의 꿈이
이제야 징험하여 비로소 돌아왔네.
신당에 봄빛이 이르렀으니
함께 태평한 때를 즐겨봅시다.
四十年前夢
如今驗始還.
新堂春色至
同樂太平閑.

또 미암에게 주다(又贈眉岩)

주상의 사랑이 융성하니 어찌 물러나리오만

벼슬을 그만두고 입하에서 정신을 수양하시오.
 황금이 궤에 가득함이 나의 소원 아니요
 새집과 맑은 시내도 하나의 보배느니.

聖眷方隆何事退
 休官林下養精神。
 黃金盈櫃非吾願
 新室清溪亦一珍。

차운(次韻) -미암 作-

경전을 읽으신 지 9년 동안에 덕음을 자주 내리시니
 주상을 인도하길 조용히 한 바 마음이 통한 지 오래로다.
 전원으로 돌아가 지극한 즐거움을 찾도록 허락하신다면
 새집에 만 권의 책이 나의 보배라오.

讀經九載德音頻
 啓玉從容久會神。
 恩許歸田尋至樂
 新堂萬卷是吾珍。

▷ 1575년 11월 창평집 사랑채의 기둥을 세우고 미암과 주고받은 시
 (『미암일기』 부록 및 乙亥(1575년) 11월 22일조 참조).

20) 仲冬 27일에 눈을 읊어 聯句를 하다(仲冬二十七日咏雪聯句)

청산에 눈이 가득하니 소나무가 분을 바르고(靑山雪滿松塗粉) -덕봉 作-
 푸른 물에 바람이 오니 방석에 수를 놓는다(綠水風來蒲刺紋) -미암 作-

▷ 1575년 11월 눈을 보며 미암과 주고받은 시(『미암일기』 부록 및
 乙亥(1575년) 11월 27일조 참조)

21) 을해년 제야에(乙亥除夜)

전옥을 등불 앞에서 보내고(전옥은 12월신)

구망은 밤중에 온다(구망은 정월신)
당에 가득한 새로운 賀客
모두가 두 눈썹이 날린다.

顯頊燈前送
勾芒夜半來
滿堂新賀客
皆是兩眉開

▷ 1575년 12월 30일에 지은 시(『미암일기』 부록 참조).

22) 무제(無題)

규모를 세우기를 누가 기특히 했나
부인의 마음 솜씨 반수(중국 고대의 이름난 장인)와 같다.
남쪽에 서실 열어 새롭게 환하고
북쪽의 서까래 밑에 다락을 놓았도다.
늙은이 창에 기대어 거드름 피우고
자손들 책을 펴고 글을 읽으리.
문득 선친의 이사하란 말씀을 생각하니
우리 자손에게 백 세의 복을 열어 주셨도다.

營度規模誰是奇
夫人心匠似班垂.
南開書室新明朗
北接樓廡舊栴楣.
老叟倚窓長寄傲
兒孫開卷效吾伊.
却思先子遷居訓
啓我雲仍百世禧.

▷ 1576년 2월 창평집 사랑채 대청의 규모를 절묘하게 세운 것에 감
탄하여 지은 시(『미암일기』 丙子(1576년) 2월 15일조 참조).

23) 무제(無題)

지락음(至樂吟) -미암 作-

정원의 꽃 난만해도 보잘 것이 없고
거문고 통소 소리 요란해도 부질없는 것.

좋은 술 고운 자태에 흥미가 없고
진짜 맛은 簡編(서책) 사이에 있다.

園花爛漫不須觀
絲竹鏗錚也等閑
好酒妍姿無興味
眞@唯在簡編間

답시(答詩) -덕봉 作-

봄바람 좋은 풍경 옛부터 보는 것이요
달 아래 거문고 타는 것도 한가지 여유로움.
술은 또 근심을 잊어 마음이 넓어지는데
당신은 어찌 서책 속에서 편벽된 생각만 하시오.

春風佳景古來觀
月下彈琴亦一閑
酒又忘憂情浩浩
君何偏癖簡編間

▷ 1576년 4월 5일에 미암과 주고받은 시(『미암일기』 부록과 『덕봉 문집』 참조). 창평으로 낙향 이후 미암은 경전의 주석 작업을 하고, 송덕봉은 사랑채를 건축하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였는데, 이 때에 지은 작품인 듯하다.

24) 8월 12일 밤의 卽景(八月十二日夜卽景)

시원한 바람은 비 온 뒤에 생기고
하얀 달은 구름 사이에서 드러난다.

베짱이는 비록 목메어 울지만

오늘밤은 다행히 한가롭도다.

清風生雨後

皓月露雲間

促織雖唧唧

今宵幸得閑

▷ 창작 연대 미상의 시(『미암일기』 부록 참조).

■ 필자 : 고려대 강사 · 동대학 한국학연구소 상임연구원